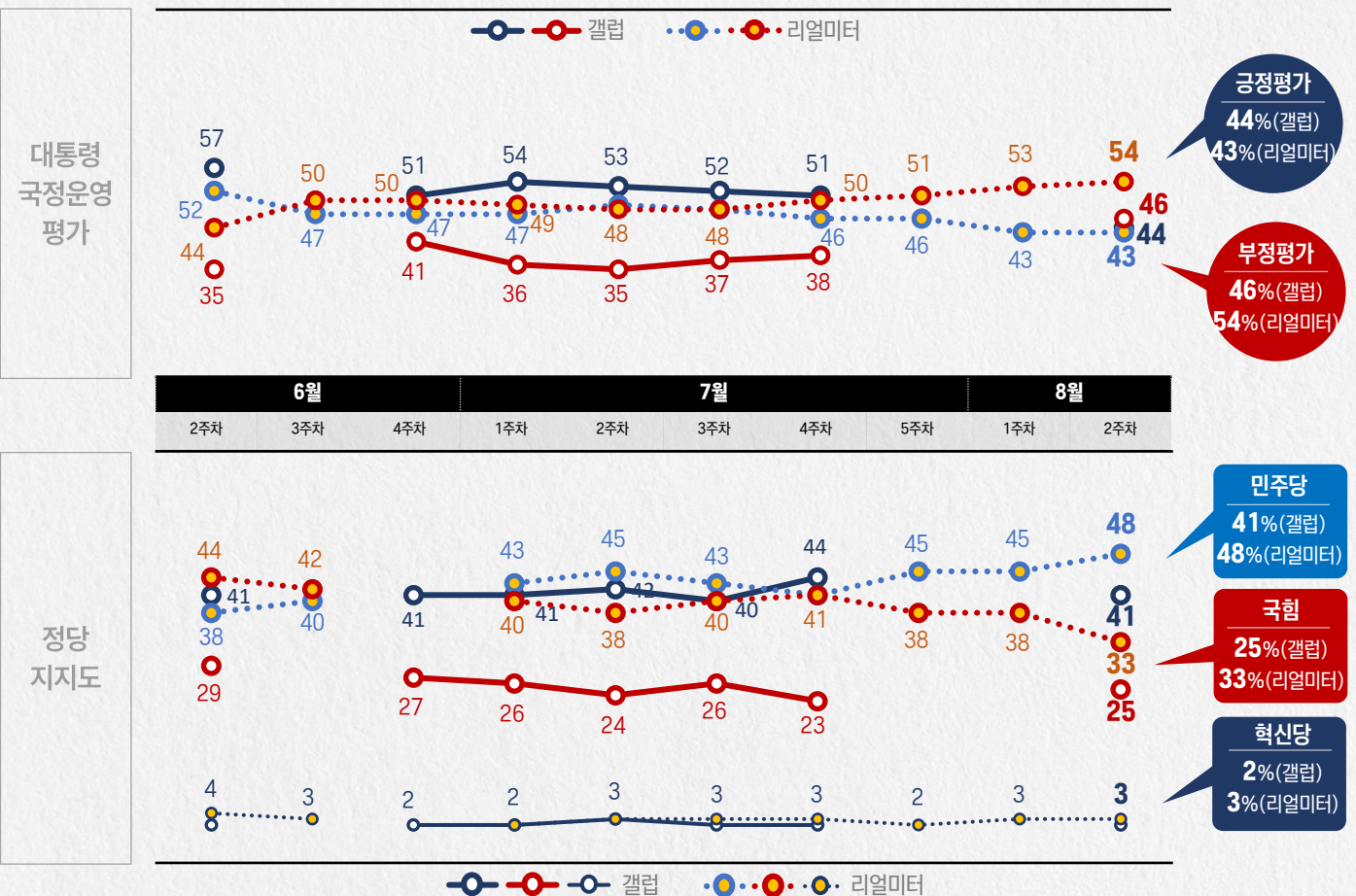


01 금주의 화두 :

2026 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 결산 - 당대표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02 주간 여론 동향 (2026년 6월 2주차 ~ 2026년 8월 2주차, 전화면접조사)

※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8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 (세부)

(※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조사개요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정당지지도			
		조사기간	사례수	응답률	긍정	부정	GAP (긍정-부정)	민주	국힘	혁신	(無)
CATI (가상번호)	NBS	08/10 ~ 12	1,001	20.4%	49	43	(+6%p)	40	23	2	(28)
	갤럽	08/11 ~ 13	1,000	9.7%	44	46	(-2%p)	41	25	2	(28)
	꽃	08/14 ~ 15	1,000	12.0%	54	45	(+9%p)	48	31	3	(13)
ARS (RDD)	리얼미터	08/13 ~ 14	1,004	3.5%	43	54	(-11%p)	48	33	3	(10)
	꽃	08/14 ~ 15	1,008	2.9%	41	58	(-17%p)	46	40	5	(3)

* 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첫 긍정·부정평가 역전 발생

여론
동향

- [갤럽] 세제개편안의 부동산, 주택 시장 파급: 긍정적 영향 24% vs. 부정적 영향 53% vs. 영향 없을 것 12%
정부의 주택시장 정책적 개입 수준: 더 많이 개입해야 27% vs. 더 적게 개입 40% vs. 현재 적당 20%
- [NBS]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잘하고 있다 34% vs. 잘못하고 있다 56%
부동산 세제개편안 평가: 찬성 46% vs. 반대 41%
검·경 수사권한 조정 인식: 긍정 효과가 더 클 것이다 34% vs.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 56%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김민석 24%, 정청래 19%, 송영길 6% 順 (태도유보 51%)
- [리얼미터] 민주당 대표 지지도: 김민석 47%, 정청래 35%, 송영길 7% 順
민주당 최고위원 지지도: 최민희 19%, 박선원 18%, 서미화 15%, 이성윤 8%, 한민수 7% 順
※민주당 지지층+무당층 대상
- [꽃]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김민석 37%, 정청래 26%, 송영길 6% 順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호도: 최민희 26%, 박선원 19%, 서미화 19%, 한민수 13%, 김용 12% 順
※민주당 지지층+무당층 대상

03 정세 읽기

2026 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 결산 - 당대표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지난 7, 8월을 뜨겁게 달구었던 민주당 제3차 전당대회가 끝났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은 향후 2년을 책임질 새 지도부를 출범시켰다. 당대표 김민석 의원, 최고위원 최민희, 박선원, 서미화, 이성윤, 한민수 의원이 선출되었다. 원지리포트는 유례없이 치열했던 이번 전당대회의 결과를 상세하게 기록으로 남긴다.

* 자료 출처 및 산출 기준

- 더불어민주당 공식 공지(2026.08.01 ~ 08.17)

- 산출 기준

- 권역 합계 투표율은 해당 권역 시·도 선거인단수와 투표자수를 합산해 산출.
- 공식 공지에 권역 합산 득표율이 없는 경우 당대표는 후보 득표수÷권역 투표자수, 최고위원은 후보 득표수÷후보 선택총수(투표자수×2)로 재계산함.
- 순회경선 공개 누계는 6개 국내 권역 768,053표 기준이며, 최종 권리당원 집계 769,051표에는 재외국민 투표자 998명이 추가됨.
- 최고위원 최종 권리당원 득표율은 사퇴 후보 2명의 표를 무효 처리한 뒤 재외국민 투표를 포함해 재산정한 공식 수치임.
- 최종 합산은 권리당원·전국대의원 유효표 70%, 국민여론조사 30%, 대구·경북·경남 전략지역 5% 가중치를 적용한 공식 결과임.
- 표 안의 득표율은 원문값을 우선 사용했으며, 재계산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함. 원문 반올림·절사 방식에 따라 일부 합계가 100.00%와 0.01%p 차이날 수 있음

● 이번 전당대회 결과의 특징과 시사점

1. 김민석 후보는 6개 순회권역 중 5개에서 1위를 기록.

충청권은 303표, 서울·경기는 1,207표 차이의 박빙이었으나 제주·인천, 강원·TK, 호남에서 연속 우위를 확보해 순회경선 전체 1순위 누계 49.91%로 선두를 형성함.

후보	충청권	부산·울산·경남	제주·인천	강원·대구·경북	광주·전남·전북	서울·경기	순회경선 1순위 누계
송영길	7,027표 (10.34%)	5,129표 (9.50%)	4,799표 (10.17%)	2,760표 (7.06%)	23,749표 (9.81%)	22,410표 (7.05%)	65,874표 (8.58%)
정청래	30,329표 (44.61%)	25,189표 (46.65%)	19,862표 (42.08%)	17,355표 (44.39%)	79,033표 (32.65%)	147,038표 (46.28%)	318,806표 (41.51%)
김민석	30,632표 (45.05%)	23,675표 (43.85%)	22,537표 (47.75%)	18,977표 (48.54%)	139,307표 (57.54%)	148,245표 (46.66%)	383,373표 (49.91%)

03

정세 읽기

2. 당대표 경선의 결정적 격차는 호남에서 형성.

광주·전남·전북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보다 60,274표 더 얻었으며, 이는 순회경선 전체 두 후보 격차 64,567표의 93.4%에 해당함. 호남을 제외한 5개 권역 합산 격차는 4,293표에 불과함.

광주·전남·전북 권리당원 투표 결과

후보	득표수	득표율	권역 순위	1위와 격차
송영길	23,749	9.81%	3	-115,558표
정청래	79,033	32.65%	2	-60,274표
김민석	139,307	57.54%	1	-

3. 후반 대형 권역의 표심이 전체 판세를 사실상 확정함.

호남과 서울·경기 투표자 합계는 559,782명으로 최종 권리당원 투표자의 72.8%를 차지함. 김민석 후보가 두 권역을 모두 이기며 앞선 박빙 구도를 최종 우세로 전환함.

서울·경기 권리당원 투표 결과

후보	득표수	득표율	권역 순위	1위와 격차
송영길	22,410	7.05%	3	-125,835표
정청래	147,038	46.28%	2	-1,207표
김민석	148,245	46.66%	1	-

4. 선호투표가 김민석 후보의 과반 확보를 완성함.

순회경선 공개 1순위 누계에서 김민석 후보는 49.91%로 과반에 미달했으나, 최종 권리당원 선호투표 반영 후 55.94%로 상승함. 공개 누계 대비 최종 반영분 66,872표(재외국민 998명 포함) 중 70.1%가 김민석, 29.9%가 정청래에게 추가된 것으로 계산됨.

순회경선, 최종 권리당원 투표 결과

후보	순회경선 1순위 누계	최종 권리당원 (선호투표 반영)
송영길	65,874표 (8.58%)	선호투표 탈락
정청래	318,806표 (41.51%)	338,809표 (44.06%)
김민석	383,373표 (49.91%)	430,242표 (55.94%)

03

정세 읽기

5. 국민여론조사와 당원·대의원 표심이 엇갈림.

국민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50.70%로 1.40%p 앞섰지만, 권리당원에서 김민석 후보가 11.88%p, 전국대의원에서 33.38%p 앞서 최종 8.16%p 차 승리를 만들었음.

국민여론조사·당원·대의원 표심

후보	국민여론조사	최종 권리당원(선호투표 반영)	전국대의원
송영길	-	선호투표 탈락	-
정청래	50.70%	338,809표 (44.06%)	4,765표 (33.31%)
김민석	49.30%	430,242표 (55.94%)	9,541표 (66.69%)

6. 지역별 참여 강도의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시·도별 투표율은 제주 37.58%에서 대구 72.01%까지 34.43%p 차이가 발생함. 대구·경북의 높은 참여와 전략지역 5% 가중치가 결합됐으나, 절대 투표 규모는 호남·수도권이 훨씬 커 전체 결과를 좌우함.

지역별 선거인단 및 투표율

권역	총 선거인 수	투표자 수	투표율	전체 투표자 비중
제주·인천	101,137	47,198	46.67%	6.14%
강원·대구·경북	72,196	39,092	54.15%	5.08%
광주·전남·전북	506,204	242,089	47.82%	31.48%
서울·경기	583,638	317,693	54.43%	41.31%

7. 최고위원 선거는 평가 주체별 선호가 분산된 초접전 구조였음.

최종 1위 최민희 후보(18.35%)와 6위 김용 후보(15.26%)의 차이는 3.09%p에 불과했고, 당선권 경계인 한민수 후보와 김용 후보의 차이는 0.60%p였음. 권리당원·대의원·국민여론조사의 1위가 각각 달라 복합 지지 기반이 당락을 가름.

8. 1인 1표제에서는 대의원 조직 우위만으로 당선을 보장하기 어려움.

김용 후보는 전국대의원 투표 29.77%로 1위였지만 권리당원 15.13%, 국민여론조사 14.90%에 머물러 최종 6위로 낙선함.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동일한 표 가치로 합산하는 구조에서 광범위한 당원·국민 지지가 더 중요해짐을 보여줌.

평가 주체별 순위 비교(최고위원 선거)

구분	1위	2위	3위	당선권 경계
권리당원	최민희 18.78%	박선원 18.44%	서미화 16.87%	한민수 15.30% / 김용 15.13%
전국대의원	김용 29.77%	박선원 27.20%	한민수 13.95%	-
국민여론조사	이성윤 18.49%	최민희 17.88%	한민수 17.24%	-
최종	최민희 18.35%	박선원 17.57%	서미화 16.60%	한민수 15.86% / 김용 15.26%

03 정세 읽기

종합적으로 보자면, 당대표 경선은 호남의 대규모 격차와 선호투표 재배분이 김민석 후보의 승리를 확정된 선거였으며, 최고위원 경선은 권리당원·대의원·국민여론조사의 선호가 분산된 가운데 5위 경계에서 초접전이 전개된 선거로 요약됨. 새 지도부는 대표 선출 결과와 최고위원 구성의 다양한 지지 기반을 통합하고, 1인 1표제 아래 확대된 당원 참여를 안정적인 의사결정 체계로 연결하는 과제를 안게 됨.

당대표 선거 최종 결과

후보	순회경선 1순위 누계	최종 권리당원 (선호투표 반영)	전국대의원	국민여론조사	최종 득표율	결과
송영길	65,874표 (8.58%)	선호투표 탈락	-	-	-	탈락
정청래	318,806표 (41.51%)	338,809표 (44.06%)	4,765표 (33.31%)	50.70%	45.92%	2위
김민석	383,373표 (49.91%)	430,242표 (55.94%)	9,541표 (66.69%)	49.30%	54.08%	당선

최고위원 선거 최종 결과

후보	순회경선 원표 누계	최종 권리당원	전국대의원	국민여론조사	최종 득표율	결과
최민희	259,744표 (16.91%)	260,098표 (18.78%)	1,955표 (6.84%)	17.88%	18.35%	1위·당선
김용	209,167표 (13.62%)	209,432표 (15.13%)	8,513표 (29.77%)	14.90%	15.26%	6위·낙선
김영호	51,731표 (3.37%)	후보 사퇴	-	-	-	사퇴
서미화	233,245표 (15.18%)	233,562표 (16.87%)	2,711표 (9.48%)	16.33%	16.60%	3위·당선
한민수	211,479표 (13.77%)	211,806표 (15.30%)	3,990표 (13.95%)	17.24%	15.86%	5위·당선
이성윤	214,118표 (13.94%)	214,499표 (15.49%)	3,649표 (12.76%)	18.49%	16.35%	4위·당선
박선원	255,008표 (16.60%)	255,262표 (18.44%)	7,777표 (27.20%)	15.15%	17.57%	2위·당선
임미애	101,614표 (6.62%)	후보 사퇴	-	-	-	사퇴

공공정책·정치컨설팅 그룹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통령 PI를 수행한 전략컨설팅의 강자 / 가장 정확한 조사
지자체, 공공기관 정책홍보컨설팅, 빅데이터 분석, 여론조사, 선거컨설팅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29, 정우빌딩 9층(여의도동 13-25)